

취 임 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 정 엽



1995년도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정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 학회가 1976년에 창립한 이래 내년이면 만20년이 되면서 많은 발전을 해온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나 출연연구소 및 기업체 연구소 연구원의 연구활동이 학회를 매개로하여 연구논문 또는 학술대회, 세미나, 강좌와 같은 모임으로 활발하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분자 관련 산업체가 특별 회비, 광고 및 직원의 학회활동 참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회를 밀어주고 있는 것도 학회가 발전한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회운영에 직접 참여한 많은 회원들의 희생적인 노력은 2명의 직원으로 학술지, 영문학술지, 기술지를 발간하고 1년에 두번의 총회를 가지며 정기적인 세미나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금년 운영목표는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연구활동이 활발한 분들이 학회 제반행사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총회에서 논문의 구두발표는 대학의 강사 이상 그리고 출연 및 기업연구소의 선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분이 주로 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와 연구원의 연구내용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학회 운영에 필요한 새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장단의 선정 문제와 국제협력 위원회 역할의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회는 금년에 한·중심포지움, 내년에 IUPAC Macromolecules 그리고 1997년에 Pacific Polymer Conference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여론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회있을 때마다 여론을 환기시키려 합니다. 과학자나 기술자가 국제적인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기술입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나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액수나 연구목표의 설정이 이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원 학생만으로 훌륭한 업적을 교수가 계속낸다는 것도 어렵고 외국 석학과의 긴밀한 접촉과 의견 교환의 기회가 없으면서 그들의 수준을 따라잡기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연구실의 후박사 채용과 국제학술 대회의 꾸준한 참여의 필요성과 재정지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고분자 관련 산업체의 규모나 운영이 선진국형이 되었고 대부분의 대학에 고분자 관련 교수가 있으며 고분자 학과가 있는 대학만도 15개나 되어 고분자 관련 연구활동은 앞으로도 발전해 갈 것이 확실합니다. 본인이 창립 준비위원장으로써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이 분야의 선배 및 동료들의 뜻을 모아 발족한 이 학회가 오늘과 같이 활발히 운영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 집니다.

이번 호에 학회임원이 소개되어 있으며 강두환 전무이사과 조원호 총무이사를 운영위원회의 축으로하여 부회장, 위원회 그리고 간사들이 합심하여 학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